



# 조경수목산책(Ⅱ X V)

- 회화나무 -



임 경 빈  
농학박사

〈전호에서 계속〉

## 7. 우리나라의 회화나무

### (1) 경주계림과 회화나무

우리나라에 있어서 회화나무는 일찍부터 인식되어 왔다. 삼국유사에 보면 9월에 궁 안에 있는 회화나무(槐木)가 사람이 곡을 하듯이 울었고 길바닥에서는 귀신이 울었다는 기록이 있다. 槐는 때로 느티나무를 뜻하는 일이 있지만 궁(宮)과는 회화나무 쪽이 더 어울리는 것으로 본다.

경주 계림은 삼국사기 탈해왕 9년(서기 65년)조에 시림(始林)으로서 기록에 나타나는데 당시 시림은 울창한 숲이었던 모양이다. 이 숲을 구성하는 나무에는 느티나무, 회화나무, 팽나무, 왕버들 등이고 모두 크게 자라는 나무들이다. 그 중 회화나무에 있어서는 가슴높이 줄기직경이 190cm에 이르는 것이



■ 서울 조계사의 회화나무 1995. 10.

있었고, 굽기에 있어서는 회화나무가 첫째였던 모양이다. 그 숲이 신을 받드는 종교적이고 보면 이곳 구성수종들은 모두 귀한 존재로 한 몫을 해왔다. 초기에는 늑대들이 이 숲 안으로 몰려들어왔다 하니 그 면적이 넓었을 것이고 또 원생적(原生的)인 성격을 띠고 있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계림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서는 동경잡기(東京雜記)에 비보(裨補)의 임수(林藪)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당시의 민간 신앙, 풍수설로 설명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회화나무는 중국 원산이라 하나 이미 2000년쯤 이전부터 계림의 구성수종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토착수종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무라타(村田)는 그의 저서(1934년도)에 있어서 회화나무는 원래 중국의 나무로서 조선과 만주에 자라고 있는 것은 사람이 심어준 것이다. 조선 사람들은 槐로 써서 괴로 발음하고 중국처럼 懷자를 쓰지 않는다. 중국말로는 槐나 懷가 같은 발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懷자를 잘 쓴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느티나무를 槐로 쓰기도 해서 그간에 혼동이 있기도 하다.

(2) 서울 조계사의 회화나무

자주 조계사를 찾는 편은 못되지만 절 옆에는 천연기념물

백송이 있고 뜰 앞에는 큰 회화나무가 있으며 대웅전의 문살무늬가 식물성으로 뛰어나 몇 번인가 찾았다. 금년 4월초8일에는 화려한 불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찾았다. 한량없는 수의 연등이 달려서 조계사의 주변공간은 꼭 차 있었다.

연등을 단 그물줄은 모조리 회화나무 줄기에 모여져 있었으니 회화나무는 초8일행사의 주인공 노릇을 하고 있었다. 고통받고 방황하고 길을 찾지 못하는 민생들이 그곳 회화나무 아래서 모여 찬란한 연등을 하늘로 해서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조계사의 회화나무는 나이가 약 400년 이라 하니 이 나무는 긴 세월을 걸쳐서 믿음의 흐름을 잘 지켜보아왔다. 가슴높이 줄기직경이 140cm(긴쪽으로)이고 땅 위 2.5m 쯤되는 곳에서 줄기는 두 갈래로 갈라져있다. 나무높이는 20m는 넘는 것으로 보았다. 큰 가지 하나는 대웅전 처마 아래로 뻗어들어가고 있다. 조계사의 회화나무는 서울 명물나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 부산 괴정동의 회화나무

부산 사하구 괴정동(槐亭洞)에는 수령 600년으로 추산되는 회화나무 노거목이 자라고 있다. 가슴높이 줄기둘레 약 64m, 수고 약 15m인 거구의 노거목이다. 처음 내가 이 나무

를 찾았을 때에는 약간의 생활 공간을 가지고 있더니 그 뒤에 가 보니 둘레의 집들이 이 나무의 공간을 빼앗아 말 못할지경에 빠져들고 있었다. 밀어붙이고 밀어붙여 살아가기 어려운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괴정동이란 지명이 생각건대 이 나무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닌가고도 한다. 그러한 유래의 나무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크게 동정이 간다. 전에는 이 나무가 천연기념물이었으나 그 보호 관리가 어렵다해서 해제하고 말았다. 귀찮다는 것이다. 주변의 땅을 사서 생육공간을 넓히자면 큰 돈이 든다는 이야기이다. 그럴바에야 이 나무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는 것이 훌가분하다는 것이다.

이 나무의 생육공간을 빼앗을 때는 어느때였던가 말이다. 인간이란 썩 핑계를 잘단다. 이 나무의 고통을 덜어줄 사람은 없다. 이 사회는 인간위주의 사회이지 나무위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진으로 보이지만 괴정 1동에는 또 한 곳에 보호되고 있는 회화나무가 있다. 철망이 쳐 있어서 그 사이로 사진을 찍었다. 600년생으로 추정되는 나무라고 한다. 그렇다면 괴정동이란 명칭의 바탕이 이 나무에서 온 것이라는 설명이 주어질 가능성도 있긴 하다.

(4) 인천 신현동의 회화나무



■ 부산괴정 1동의 회화나무(사진위)



■ 부산 괴정동의 회화나무(사진 위)  
■ 인천의 회화나무 1995. 9.10  
(사진아래)

전철을 타고 인천으로 갔다. 1995년 가을의 이야기이다. 택시기사들이 이 나무를 대개는 잘 모르고 있어서 찾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 나무를 찾았을 때 앞에 말한 부산 괴정동의 그것과는 달라 넓은 생육공간을 가지고 있었다. 도시의 땅이

값진 것이고 보면 이 나무에 대한 공간압박도 밀어 다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 은 지난날 수백년간의 상황으로 볼 때 부패가 심하였기 때문에 간단한 뇌물로서 이 회화나무도 공간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이 나무는 수령 500년에 걸맞은 위용을 갖추고 있었다. 뿌리목 줄기둘레 10m, 수고 22m로 추정되었다. 마을사람들은 이 나무의 꽃피는 상황을 보고 그 해 농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점치기도 했다 한다. 꽃이 위에서 먼저 피어 아래로 내려오면 그 해는 풍년이 드는 것으로 믿었다. 이 나무는 인천의 자람이 아닐 수 없다.

#### (5) 경남 의령의 회화나무

나는 경남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마을에서 있는 회화나무를 보고 놀란 적이 있다. 이 마

음에는 천연기념물로 은행나무가 있고 그 옆에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말하여 현고수(懸鼓樹)라 부른다. 임진왜란 때 애국열사 광재우대장이 의병을 모아 이 느티나무 가지에 북을 달아 치면서 훈련을 시켰다고 한다. 세간리는 그러한 마을이다.

나는 이 마을에서 한 겨울에 회화나무를 본 것이다. 책에 회화나무는 겨울동안 열매를 달고 있다 했으나 그 두드러진 보기를 나는 이 마을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지천으로 달린 노란색의 열매가 나무를 덮고 있었다. 그것은 화려한 꽃송이에 견줄 수 있었다. 봄 철 일찍이 피어난 한량없는 목련꽃에도 비유될 수 있었다.

겨울의 회화나무가 이처럼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하고 나는 다시 다시 놀랐다. 그 나무에는 까치집이 있어서 더욱 정



- 경남, 의령 세간리의 회화나무 1995. 1. 17(사진 왼쪽위)
- 충남 해미성의 호야나무 1997. 2. 25 (사진 위)
- 충남 당진의 회화나무(사진옆)

감이 갔다. 회화나무의 이러한 성질이 만약 나무의 개체유전성(個體遺傳性)에서 오는 것이라면 세간리의 회화나무는 연구재료로서 가치가 높다고 보았다.

(6) 당진 송산면의 회화나무 옛날에는 가문을 자랑하는

뜻에서 회화나무를 심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것도 아니다. 이곳 송산면 삼월리의 회화나무도 그래서 심어진 것이라 한다. 즉 조선조 인조(仁祖)때 영의정을 지낸 이용재가 인조 25년(1647)에 이곳에 내려와 집을 지으며 가문의 번창을 바라는 뜻에서 이 나무를 심었다

한다. 회화나무의 상징을 읽을 수 있다. 수령 700년생으로 추정되고 수고는 20m쯤 되며 가슴높이줄기둘레는 5.5m에 이르고 있다.

(7) 해미성 내의 호야나무

충남 서산시 해미면에는 해미읍성이란 오래된 성이 있다.

이 성안에 그 지방에서 호야나무로 부르는 노목이 있다. 이 나무는 회화나무인데 그곳 사람들은 호야나무로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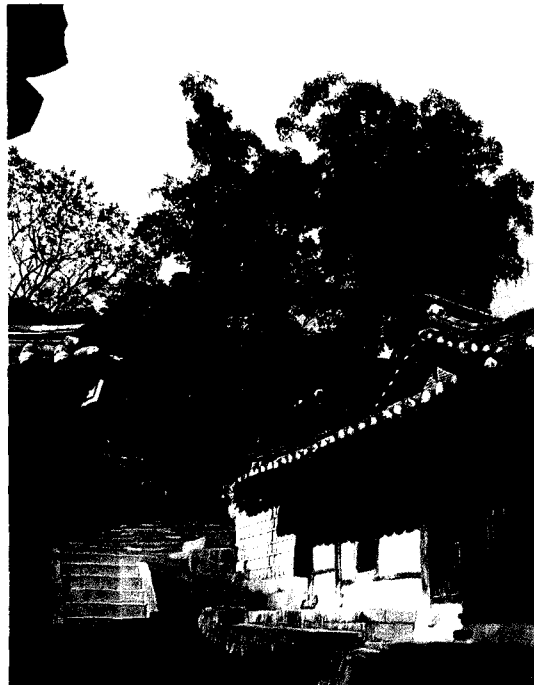
회화가 발음상 호야로 변한 것이다. 이 나무는 수고가 약 12m인데 그 옆에 서있는 간판 안내문을 읽으면 수령은 약 600년이라고 했다. 줄기의 아랫쪽에는 큰 혹이 몇 개 나 있다. 이 나무가 서 있는 주변자리는 옛날 큰 옥사(감옥)가 있었고 천주교도들이 수난을 당한 곳이다. 호야나무로 불리우는 이 나무는 천주교도들의 교수형이 집행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이 나무에서 지난날 천주교도들의 절규를 들을 수 있다.

#### (8) 경주 안강읍의 회화나무

마을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이 회화나무는 장엄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 나무의 줄기는 지상 2m쯤 되는 곳에서 크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 회화나무란 이 정도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듯이 몸집이 거대하다. 위압적이고 그 앞에서는 인간의 존재가 미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다.

이 나무에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있다.

고려 공민왕 때 이 마을에 살고 있던 김영동이라는 청년이 북쪽으로는 흥건족이 남쪽에서는 왜구가 침입하여 노략질을 하는 사실을 알고 당시 19살의 나이로 싸움터로 나가



■경북 안강의 회화나무 1992. 6. 29 (사진 위)  
 ■경북 도산서원의 회화나무 1992. 7 (사진 아래)

기로 결심했었다. 그는 그때 이 회화나무를 심고 싸움터에서 죽는 일이 있을 때 이 나무를 자식으로 알고 키워달라고 부모에게 부탁했다. 그는 싸움터에서 전사하게 되었는데 그 뒤 그의 부모가 이 나무를 아들로 여겨 잘 보살폈다고 한다.

나무의 나이 400년생으로 추정되고 수고 17m, 수관직경 20m에 이르고 있다.

그밖에도 나는 많은 회화나무를 보아왔다. 그 하나하나를 이곳에 다 들 수 없다. 경북 안동 도산서원 구내에 있는 회화나무는 인상적인 것으로 기억

에 남아 있다. 학문하는 귀한 자리에 이 나무는 어울린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이런 생각 없이 많이 심어지고 있다.

## 8. 회화나무와 느티나무

이 두 나무는 서로 닮은 점이 많다. 첫째로 우리나라 전역에 나서 좋은 사람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물론 높은 산, 추운 곳에서는 찾기 어렵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온대의 낙엽활엽수림을 구성하는 주요한 대표종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줄기가 굵게 되고 곁가지가 발달해서 큰 수관을 만들어 진한 그늘을 던져 준다는 데 있다. 서로가 좋은 정자나무라는 것이다. 셋째는 수백년을 오래 산다는 것이다. 팽나무를 함께 넣어서 생각할 수 있으나 팽나무는 남쪽 수종이러는데 다소 이질감을 던져준다. 수형에 있어서나 시각에 던져지는 질감에 있어서 느티나무와 회화나무는 유사한 점이 많다. 그래서인가 우리네 선조들은 槐자를 느티나무로도 해석하고 회화나무로도 해석했다. 왜이유해라는 책과 물명고(物名考)에서는 槐를 뚜렷이 회화나무로 밝히고 있지만 괴목상(槐木床)이라 할 때에는 느티나무 목재로 만든 밥상 등을 뜻한다.

그런데 특히 잎이 떨어지고 난 뒤의 줄기와 가지의 골격을 비교해 보면 이 두 나무는 크

게 다르다. 나무의 아름다움은 춘하추동을 통해서 감상되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겨울의 나목(裸木)의 미는 일품이다. 우리나라는 긴 겨울철을 가져서 더욱 이 나목은 예술품으로 전시된다.

이러한 나목의 경우 회화나무와 느티나무는 서로 다른 느낌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말하자면 회화나무는 호탕하고 대담무쌍하며 꼭 일정한 순서와 섭리에 얽매이지 않는다. 반면 느티나무는 세밀하고 성실하며 정해진 순서에 착실하게 따르는 성품을 보여준다.

식물사회의 변천과정을 설명하는 소위 천이(遷移)의 이론 설명에 있어서 촉진(促進)모델과 내성(耐性) 모델이 있는데 전자는 한 계단을 밟아야 다음 단계로 발을 옮겨 놓을 수 있



■함안 칠북면의 회화나무

다는 것이고 후자는 반드시 그러하지 않고 상황이 주어지면 한 계단을 뛰어 넘어 나아갈 수 있다는 이론이다. 전자는 순서에 얽매이는 것이고 후자는 비약도 인정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느티나무는 촉진모델의 성격을 회화나무는 내성모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정신의 세계로 승화하면서 예술 또는 철학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 인간 심성을 가다듬어 주는데 큰 기능을 구사하게 된다. 회화나무 그늘 아래에서는 삼국지나 장자(莊子)의 소요편(逍遙篇)을 읽는 것이 좋고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서는 동몽선습이나 논어를 읽는 것이 격에 어울린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나무가 앞서고 뒤서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격식에 사로잡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처지보다는 구애받지 않고 심호흡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처지를 더 부럽게 여긴다.

## 9. 회화나무의 쓰임새

회화나무는 앞에서 몇 번인가 지적했듯이 중국에 있어서는 서울 장안(長安)에 이 나무로 가로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괴시(槐市)라는 이름이 등장했고 또 학문하는 사람들이 이 나무 아래에서 학문을 주고 받았기에 槐市라 하면 대학(university)을 뜻하는 것으로도



■ 회화나무(큰것)과 느티나무(작은 것)의 종은 사이 대구 달성 1992. 6. 29

받아들였다. 槐花黃이라 하면 회화나무꽃 노랗게 피어나는 음력 7월의 별명으로도 되었다.

회화나무의 꽃은 고혈압 치료의 특효약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 꽃에는 노란 색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꽃봉오리 때 이것을 따서 물에 끓이고 이 물로 천이나 종이를 염색하는데 쓴다. 중국의 노란 종이는 거의 대개 이것으로 염색한 것이라 한다.

중국에서는 봄에 어린 잎을 따서 쓴 맛을 우려내고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고 차잎의 대용으로 쓴다. 흥년에 있어서는 회화나무 어린 잎을 구황식물로 이용했다 한다.

본초에는 그 열매를 밭에 뿌리고 싹이 트면 그 새싹을 식용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말하자면 콩나물을 재배하듯이 해서 식용으로 하는 모양이다. 중국에서는 회화나무 열매를 槐實이라 하기 보다는 槐角으

로 해서 상품화하고 있다.

회화나무의 열매는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흥미있는 것은 한 알(單子) 또는 다섯 알(五子)로 된 것은 버리고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알 수 없는 일이다.

## 10. 제민요술의 회화나무

제민요술은 지금으로부터 약 1450년 전에 저술된 중국의 농서(農書)이다. 말하자면 농서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 기록된 회화나무의 양묘법은 흥미진진한 점이 있다. 다음과 같다.

회화나무의 열매가 성숙했을 때 이것을 채집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자실(子實)을 취한다. 이것을 햇볕에 쪼여서 벌레의 해가 없도록 한다. 하지(夏至) 전 10일경 이것을 물에 담구어 둔다. 6-7일이 경과하면 눈이 뜨게 된다.

삼(麻) 씨를 뿌릴 때 삼씨와 함께 뿌리도록 한다. 이와같이 하면 그 해 중에 삼과 같은 키로 자라게 된다. 삼은 끊어내어 이용하고 회화나무만 남기도록 하나 너무 가늘어서 스스로 설수가 없다. 그래서 한 나무마다 막대의 지주를 세워주도록 한다. 이때 묶은 자리가 바람으로 마찰되어 상처를 받는 일이 있기에 새끼같은 것을 대어서 마찰을 막아 주도록 한다.

다음 해에 흙에 손질을 하고 다시 삼씨를 뿌려준다. 이때 삼은 회화나무 묘목의 신장생장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책에는 삼이 회화나무의 자람을 험박한다 했는데 흥미있는 표현이다. 이와같이 해서 다음해 봄 즉 3년째 봄에 옮겨 심게 된다. 이와같이 하면 나무줄기가 곧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곧은 줄기가 짧아서 좋지 못하다.

이러한 양묘법을 쓰면 1000 그루의 묘목에 있어서 단 한 그루의 줄기굽은 묘목을 찾을 수 없다. 이와같이 키운 것은 그 뒤의 자람도 좋고 줄기굽은 일이 없다. 약 1500년 전의 양묘기술이지만 지금에 있어서도 참고가 된다. 무릇 나무 줄기는 곧아야 쓸모가 있다. 높은 지하고(枝下高)를 가진 곧은 줄기 그것은 회화나무에 있어서는 무척 바람직한 조건이다. 더욱 참고가 된다.